

배우 주원, “액션스타가 되다”

넷플릭스 영화 ‘카터’서 주인공 카터 맡아
전에 보여준 없는 강도 높은 액션 소화해



넷플릭스 영화 ‘카터’를 보면 배우 주원(35)이 우리가 알던 주원이 맞나 싶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미소년 얼굴을 하고 나긋하게 말하는 그 배우는 이 영화에 없다. 대신 삭발한 머리에 벌크업 된 근육질 몸매, 웃음기 없는 얼굴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한 인간 병기가 한 명 있다. 버거버튼은 채 낫을 휘두르며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건 정말 주원이 아니라 인간 흉기 ‘카터’다. 최근 주원을 만났다. 그는 “매번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영화 ‘카터’는 ‘악녀’(2017) ‘내가 살인범이다’(2012) ‘우리 액션배우다’(2008) 등으로 액션영화라는 한 장르에 전착해온 정병길 감독의 신작이다. 정 감독은 ‘카터’로 액션의 끝을 보여준다. 오토바이·자동차·헬리콥터·비행기에서 싸우고, 땅에서 물에서 하늘에서 싸운다. 칼·총·몽둥이·낫 등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극한의 액션이라는 말이 딱 적당하다. 그리고 주원은 정 감독의 그 어렵고 위험한 주문을 모두 소화하면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 “대본 보자마자

하고 싶었어요. 이걸 한국에서 찍을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전 누군가는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원이 액션 연기를 하는 게 이 영화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드라마 ‘각시탈’(2012)에서 이미 꽤 난도가 있는 액션 연기를 한 적이 있다. 이밖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크고 작은 액션 연기를 했다. 액션 연기를 관촬해 해낼 수 있다고 자평해왔다. 다만 ‘카터’는 시나리오만 봐도 이전에 했던 액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액션 연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촬영에 들어가기 약 4개월 전부터 ‘카터’ 액션 팀과 함께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몸을 불렀다. 주인공 카터의 몸이 조각같은 근육질 몸매이기보다는 당당한 체격의 인물이라는 생각에 근육량은 물론이고 지방량도 함께 끌어올려 약 7kg을 찌웠다. 그는 그렇게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주원의 몸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던 주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다. 그는 “저희 영화가 액션 끝판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원은 벌크업 한 몸에 어울리는 목소리도 장착했다. 대사가 거의 없는 이 작품 특성상 카터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더 큰 힘을 실기 위해서였다. 이런 목소리 변조는 마치 ‘다크 나이트’ 시리즈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했던 목소리 연기가 떠오른다. “진 카터라는 인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강하게 생각했죠. 강한 사람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로요. 무슨 일이든 이겨내는 강한 남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거칠게 바꿔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액션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카터’는 러닝타임 134분 간 액션 장면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영화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종류의 액션이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액션도 있다. 또 너무 위험해 보인다 싶은 장면도 여럿 있다. 주원은 그 많은 액션 시퀀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면으로 봉고차 액션을 꼽았다.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카터는 자신을 쫓는 CIA 요원들과 나란히 달리는 봉고차 3대 위를 오가며 싸움을 벌인다. 그는 “너무 잘 나와서 만족스러운 장면이지만, 찍을 땐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좁은 거예요. 봉고차 한 대에 성인 남성 두 명만 들어가도 딱 차 더라고요. 게다가 카메라 감독님도 있어야 했고, 카메라에 부딪히고, 주먹이 천장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액션을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제 상대역을 한 분들이 외국인인데, 이 분들이 멍치가 좀 커야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화끈한 액션 덕분인지 ‘카터’는 지난 5일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영화 중 비영역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그는 “배우 생활 내내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작품에 임했다”며 “배우라면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모습을 좋게 봐준 것 같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원은 만약 정 감독이 ‘카터’ 후속작을 만든다면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 호불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다음 작품에선 더 멋진 액션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덜하게 해보고 싶어요.”

권상우·성동일, 코믹 콤비…티키타카 예고



‘위기의 X’ 다음달 2일 공개

포레스트’ 등을 집필한 광경윤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희망퇴직, 집값폭등, 주식떡락도 역올라가는데 신체 노화라는 세월의 직격타까지 제대로 얻어맞은 ‘아저씨’ 앞에 뼈 때리는 인생 멘토인 ‘허준’이 나타난다. ‘아저씨’의 깊은 속사정까지 탈탈 털기 위해 내시경을 꺼낸 ‘허준’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과 의기투합한 ‘아저씨’의 상반된 얼굴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좌절의 순간마다 ‘아저씨’ 곁에 있는 ‘허준’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건강검진 메이트가 된 두 사람은 나란히 환자복을 입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치고 초라한 ‘아저씨’ 앞에 나타난 ‘허준’이 선글라스에 가죽점퍼까지 장착과 동시에 슈퍼카와 함께 나타나 그의 특별한 위로법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성동일이 연기하는 ‘허준’은 겉으로는 심드렁해도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한 속내를 지닌 ‘걸차속프’ 동네 명의, 성동일은 “허준은 동네 형이자 친구 같은 캐릭터”라며 “우리 이웃들, 옆집 아저씨, 내 동생, 아버지, 삼촌 등 주변에 있을 법한 소소한 이야기가 담겨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시너지에 대해 권상우는 “성동일 선배와는 가족이자, 영혼의 파트너 같은 형이다. 이번 작품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어 너무 즐겁다”라며 기대를 더했다. 성동일 역시 “권상우 배우는 동네 친구 같은 편안한 사이다. 대사를 주고받는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남다른 호흡을 과시했다.

9월2일 공개.

배우 권상우와 성동일이 범상치 않은 티키타카를 예고했다.

16일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 측은 ‘아저씨(권상우 분)’의 인생 멘토가 돼 줄 동네 명의 ‘허준(성동일 분)’의 모습이 담긴 스틸컷을 공개했다.

‘위기의 X’는 희망퇴직, 주식떡락, 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아저씨’가 인생 반등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현실 격공 코미디).

영화 ‘해적2: 도깨비 깃발’, ‘탐정: 더 비기닝’, ‘제2의 로맨스’ 등을 연출한 김정훈 감독과 드라마 ‘SNL 코리아 시리즈’, ‘연애혁명’, ‘빅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톱10에 10곡 진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보컬라인이 참여한 브라질계 미국 프로듀서 베니 블랑코(benny blanco)의 신곡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0위로 데뷔했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 최신 차트(20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 진·지민·뷔·정국·지현·정호·정국·정호·정국이 목소리를 보낸 블랑코의 ‘배드 디시전스’는 이번 주 ‘핫100’에서 이 같은 순위로 직행했다.

빌보드는 “발매 첫 주에 ‘배드 디시전스’는 1010만 회 스트리밍됐다. 디지털 다운로드 수, CD/카세트 판매량 등은 6만6000으로 집계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0곡 이상을 빌보드 ‘핫 100’ 톱10에 올린 첫 한국 아티스트가 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20년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새비지 러브’ 리믹스, ‘라이프 고스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브릿팝 밴드 ‘폴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까지 총 6곡을 1위에 올렸다. 이중 발표 동시에 1



위로 데뷔한 핫샷만 5곡이다. 이번에 ‘온’ 4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8위, ‘페이크 러브’ 10위 등의 ‘핫100’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는 이번 주 빌보드 세븐 차트에서도 선전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는 차트에 진입하면서 곧바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앞서 이 곡은 빌보드와 함께 세계 최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최신 차트(8월 12~18일)에서 53위로 데뷔했다.

배우 이제훈 “영화 제목에 내 이름…떨리고 부담되죠”



내일 오후 6시 공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제훈의 리얼한 모습과 영동한 상상을 담는다. 이제훈은 친구와 주변인을 만나 숨겨진 모습을 알아간다.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야근이 일상인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을까?’ ‘있고 지낸 꿈을 이루며 살고 있지 않을까?’ 등을 상상한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2019) 윤단비 감독이 연출한다.

이제훈은 “보통 감독님들이 작품을 제안할 때 기존 틀에 갇힌 내 모습을 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시도하는 게 쉽지 않아 항상 누군가가 먼저 이끌어 주길 원했다”며 “윤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면 ‘꾸밈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컸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작품에서 ‘인간’ 이제훈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했다”며 “그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할 기회가 없었다. 나라 는 사람에 관해 흥미로워할까?”라는 걱정도 했

지만, 내가 살아온 배우의 길을 스스로 돌아보고 배우로서 죽어나가고 싶었다. 지금의 기록을 통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은 “이제훈 다큐멘터리라면 한 번 해보고 싶었다.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 하겠다고 했다”며 “이제훈의 생활이 오픈된 배우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알고 싶었다. 과거의 선택에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선택들이 나를 만든 것이고 ‘지금의 현재에 만족할 수 있을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배우 박정민과 이동휘 등 절친들도 등장할 예정이다. 윤 감독은 “이제훈은 농담했을 때 바로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면 재미있다. 이런 유머코드를 가진 게 하나의 매력”이라며 “다양한 게스트가 출연해 이제훈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르다. (걸 운) 보이는 것보다 다층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18일 오후 6시 공개.

배우 이제훈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보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seezn) ‘어나더 레코드: 이제훈’(감독 윤단비)이다.

이제훈은 16일 어나더 레코드: 이제훈 제작 보고회에서 “여타 다른 쇼케이스보다 떨리고 부담된다. 영화 제목에 내 이름이 써있지 않느냐. ‘잘 선보여야 할 텐데’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걱정된다”면서도 “감독님과 촬영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거짓없이 다 해보자’고 했다. 좋으면 좋든대로 듣고 별로라면 앞으로 배우로서 잘 해갈 날이 있으니까 귀엽게 봐

김준수·김소현·정선아 총출동…팜트리아일랜드 갈라콘서트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가 이끄는 팜트리아일랜드가 오는 9월 갈라콘서트를 연다.

9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팜트리아일랜드 첫 갈라 콘서트는 뮤지컬 스타 김준수, 김소현, 정선아부터 진태화, 서경수, 케이, 양서윤까지 소속 아티스트 7인이 모두 출연한다.

여러 무대에서 활약해온 이들은 콘서트에서 다채로운 뮤지컬 넘버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를 위해 김준수를 필두로 배우들 모두 준비에 힘 쏟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위키드’, ‘킹키부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등 다양한 작품을 진두지휘해온 양주인 음악감독이 함께 무대를 만든다.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다양한 작품의 뮤지컬 넘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배우들의 개성으로 재구성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서희, 5년만에 안방 복귀… ‘마녀의 게임’

탤런트 장서희가 ‘마녀의 게임’으로 돌아온다.

안방극장 복귀는 ‘언니는 살아있다’(2017) 이후 5년 여만이다.

MBC TV 저녁 일일극 마녀의 게임은 거대 악에 의해 희생된 두 소녀의 모성애를 그린다. 장서희는 전하그룹 비서에서 상무이사, 대표이사까지 오르는 ‘설유경’을 맡는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모와 우아한 자태, 고고한 품격을 지닌 인물이다. 누구에게도 속내를 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장서희는 무서운 야망과 따뜻한 모성애를 품은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김규선은 첫 주연이다. 몇 번을 쓰러져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정혜수’를 연기한다. 평소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딸 ‘한별’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 뛰어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창석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특검팀 검사 ‘강지호’로 분한다. 명석한 두뇌와 잘생긴 외모, 모델 같은 기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늘 쫓겨도 노력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약값같이 매달려서 검사 자리에 오른다.

‘금나와라 뚝딱’(2013) 이형선 PD와 ‘가족의 비밀’(2014-2015) 이도현 작가가 만든다. ‘비밀의 집’ 후속으로 10월 첫 방송.